

발언/질의	탄소중립 관련 주요내용
이철규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충전소 안전 관리 소관 부처가 어느 곳인지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부처·기관들이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 전가 • 김해 제조식 수소충전소 경제성 검토 조작 문제에 대해 질의
김정재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탈원전 공약 지키기 위해 월성 1호기 수명이 남아 있음에도 경제성 조작을 통한 조기 폐쇄 강행 문제 지적. ⇒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정재 의원의 주장은 사실 관계가 틀림.
최승재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튬, 니켈, 구리 등 산업적 중요도가 높은 광물, 천연가스, 원유 가격 상승. 해외자원개발 이전 정부의 실패한 사업이라는 꼬리표 있어, 매각에 신중을 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 개발 투자해야 함. ⇒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과거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무분별한 투자로 부채 비율 늘어나, 구조조정 및 부실 자산 매각으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필요 ⇒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석유공사는 에너지 부분 국방 부라고 생각. 전략 안보를 위해 1일 생산량 14만 배럴 유지 등 확실히 할 것. ⇒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신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료 광물 확보 문제는 장기적 시야로 자원 안보 차원에서 접근 해야 함을 공감. 그동안 자원 확보는 개발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비축강화, 폐금속 자원 회수 재활용 등 균형있게 추진할 것.
권명호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공사 자본이 2013년 10조 원 수준에서 매년 줄어들어 작년 마이너스 1조 1천억 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에 1천억 투자는 적절하지 않아. • 간헐적 재생에너지에 따른 공급 불안정성, 울산에 조성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는 동해 가스전 주변으로 초대형 태풍 통과하는 곳. 유럽에 적합한 해상풍력 우리나라 적용 신중 기해야. • 울산 부유식 해상 풍력 반대 어민 주민수용성 질의 ⇒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주민수용성 위원회 등 성실히 챙길 것, 이익공유제 고려 중. 해상풍력·플로팅 세계 최고

	회사인 에키노와 협력할 것이며, 예타 통과한 경제성도 다시 적극 검토할 것.
양금희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 개최되는 대구세계가스총회는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 최대 큰 행사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가능해야 ⇒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지역 경제 유발 최대화되도록 준비 중. • 수소 연구 개발 투자 금액은 1828억 원인데 반해 그린수소 기술 국산화는 70%, 내년 수소 47만 톤 공급계획 실현 가능한가? 수소 경제 안착을 위해 수소차 충전 인프라 해결되어야 ⇒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가스공사 본사 부지에 수소 R&D 센터 구축 계획 등 대구시가 수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 하는 모멘텀 될 것.

감사개시 이학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감사개시, 발언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강원랜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재단 등 12개 기관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유 가스 석탄 등 자원은 우리나라 에너지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현대사회 문명 발전과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 왔습니다. 또한 2차 전지 소재로 쓰이는 리튬, 코발트, 망간 등 핵심광물은 신재생에너지 저장 수단과 전기차의 중요한 구성 부품을 만드는 요소로써 광물 자원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겨울철을 앞두고 천연가스에서 시작된 수급 불균형이 석유와 석탄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 및 광물 자원은 급격한 가격 상승은 실물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국정감사 대상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와 자원 정책을 일선에서 지원하는 기관들로서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 안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기관들입니다. 그런 만큼 이들 기관에 대한 투명한 경영의 요구와 미래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청사진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감기관 관계자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잘 새겨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수를 거부하거나 위증 즉 허위로 진술하거나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김동섭 사장께서 대표로 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섭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김동섭 사장(한국석유공사)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석유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기관장 석유공사 사장 김동섭

발언 이학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모두 앉아주시시오. 그러면 먼저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김동섭 사장(한국석유공사) 보고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갖게 되어 영광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석유공사는 자원 안보와 수익성 극대화 전략을 목표로 석유 개발 및 국가 에너지 안보 체계를 공개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과거 고유가 시기 차입에 의존한 해외 석유 자원 확보 추진 결과로 초래된 재무적 어려움 극복 및 국제적인 에너지전환 거래 맞춰 국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약 11억 배럴의 해외 석유 매장량과 9,700만 배의 비축유 확보를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말 이후 지속된 저유가와 자본 감소로 인한 재무적 어려움을 극복을 위해 비핵심 자산 매각 우량 자산 투자 유치 비용 절감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고유가에 힘입어 2682억 원의 영업이익과 이익과 단기 기준이지만 2010년 이후 처음으로 918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국제적 에너지전환 흐름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사장 직속의 ESG 추진실을 신설**하여 ESG가 위원회 활동 차원을 넘어 공사 고유 사업과 연계한 **ESG 파이크노믹스 구현 즉 사회적 가치와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위해 CCS 사업 부유식 해상 풍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일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공사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략)

발언 이학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채희봉 사장(한국가스공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 사장 채희봉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스공사는 창립 이래 38년간 대한민국의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 성장하며 국가 발전 및 국민의 공공복리 이바지해 왔습니다. 가스공사는 **과거에 천연가스 사업 성과를 수소 생산 및 공급 인프라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수소 경제를 통한 탄소중립 선도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여 수소 사업 및 LNG 신사업에 기반을 둔 지속 가능한 B2C 기업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가스공사 임직원은 국가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이학영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기관들의 업무 현황 보고는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오늘 국정감사 피감기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님,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입니다.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입니다. 김인수 대한석탄공사 사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입니다.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입니다.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입니다.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입니다. 차동형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입니다. 최영선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원

산업정책국장 및 수소 경제정책관이 현재 출석해 있으니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이철규 위원(국민의 힘): 네 이철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수소 문제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굉장히 관심이 크기도 하고 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나 그중에도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산업부에 수소충전소 안전 현황을 파악하고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보내온 자료가 세부 사항이 없고 확인해 보려니까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부에다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왔습니다. 환경부에다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환경부의 요구하니까 환경부는 가스안전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서 관리하니까 그쪽에다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또다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다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원인들은 수소충전소 안전 문제 고장 문제에 대해서는 현안 관리 안한다 이렇게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부처 또 기관끼리 서로 핑퐁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050년까지 수소충전소 2천 개 이상을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충전소 확대 사업이 안 되는 것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안전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그냥 이 막연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정부는 국민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수소 안전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정권 말이 되는 부채가 대통령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나몰라라 책임지지 않겠다 손 빼고 있는 겁니까 질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소충전소 안전 관리 책임은 누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실태 여부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가스공사의 북한 해양 부유식 가스발전소 건설 제안 건 및 북한지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관련 질의)

발언 이학영 위원장: 또 의사진행 발언 더 없으시죠. 네,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영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동섭 사장(한국석유공사) 답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사업건 재무구조에 대한 질의

발언 이학영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김정재 위원(국민의 힘) 질의 / 채희봉 사장(한국가스공사) 답변

김정재 위원: 네 국민의 힘 김정재입니다. 가스공사 사장님 채희봉 사장님, 네 나와 주십시오. 네 요즘 재판 받느라 힘드시죠. 괜찮습니까? 힘드십니까?

채희봉 사장: 네 잘 받고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예,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수명이 남아 있는 밀정환 원전을 강제로 폐쇄시킨 그야말로 희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이 감사원 감사 결과와 검찰의 기소로 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법과 절차를 모조리 무시하고 경제성까지 조작한 이 정권의 막가파식 밀어붙이기에 국민들은 경악

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최대의 사건의 중심은 바로 최희봉 가스공사 사장님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계십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서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 중심으로 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10월에 백운규 전 장관과 산업부는 월성 1호기를 즉시 폐쇄하는 것보다는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본 계획을 먼저 수정을 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한수원이 조기 폐쇄 이행 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서를 수립해서 한수원이 스스로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유도하자라는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최희봉 비서관과는 이에 대해서 호통을 치죠. 도대체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정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전법 절차 따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안 된다 이러려면 청와대에 오지도 말아라라고 산업부의 의견을 묵살을 합니다. 협박에 가깝죠. 그러니까 백운규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은 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2018년 4월 2일입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 도대체 언제 결정할 거냐라는 댓글을 올리십니다. 이러자 우리 채희봉 사장은 그날 오전에 난리가 난 거죠.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하문을 하니 그래서 바로 빨리 산업부는 월성 1호기를 즉시 정지하라는 입장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월성 1호기는 즉시 가동 중단해야 된다는 청와대 분위기를 빨리 산업부로 전달을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협박 수준에 산업부가 일을 잘 안 챙긴다고 청와대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도 반드시 전달을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당시에 에너지 정책실장에게 원전 관련 계수를 뜯어맞춰라라고 경제성 조작을 직접 지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 공소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지시를 받은 백운규 장관은 산업부 담당 과장에게 이렇게 얘기 합니다. 담당 과장은 원안위 운영 변경 허가 시까지는 가동하다가 중단하는 게 한수원 의견입니다라고 하니까 그 유명한 너 죽을래라는 막말까지 합니다. 결국 산업부는 한수원과 삼정회계법인을 압박해서 경제성 조작을 통한 불법 조기 폐쇄를 강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6월 15일 날 산업부와 한수원은 함께 이야기를 해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조기 폐쇄 폐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모든 중심에는 채희봉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와 같이 최희봉 사장은 멀쩡한 월성 1호기를 직권 남용으로 강요하고 또 지시하고 또 경제적 조작을 통해서 즉시 폐쇄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설계하고 지시하고 보고받은 셈이죠. 그리고 그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파악을 한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탈원전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최희봉 당시 비서관은 이것을 혼자서 다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희봉 사장 위에 이 모든 걸 결정한 누군가가 있지 않느냐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혼자서 다 총대 메고 짊어지고 가겠다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이렇게 하면은 바로 꼬리 자르기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최근에 정말 닳은 꼴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뒤흔들고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설계 지시 보고를 받은 실질적인 사건의 주범 바로 우리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입니다. 그리고 주무부처 장관인 바지사장 백운규 전 장관입니다. 그다음에 실무 이행을 한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산업부 공무원 3인방이 있습니다. (중략) 채희봉 사장님 이거 혼자서 지금 모든 거 저기 총대매고 가시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다 짊어지고 가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스스로 진실을 밝히시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희봉 사장: 제가 먼저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이 공소장에 어디에 나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먼저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그거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멀쩡한 원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월성 1호기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위법하고 안전하지 않은 발전소라고 이미 이거는 판결이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에너지 기본 계획과 전력 수급 간의 기본 계획 간의 관계는 정합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 결과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MB정부에서 2008년도에 1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2030년도까지 40%까지로 했는데 2013년도 박근혜 정부에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만든 거는 22.7%입니다.

김정재 의원 (마이크 꺼짐):

채희봉 사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사실관계를 정정을 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김정재 의원 (마이크 꺼짐):

채희봉 사장: 아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원전, 월성 원전과 관련되는 경제성 계수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는데 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디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까? 공소장을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라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 국회에서도 이거는 답변을 드렸잖아요. 제가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서 관여한 바도 없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수를 조작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마치 제가 계수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사실관계를 반대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정정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재 의원 (마이크 꺼짐): 원전 관련 계수를 뜯어 맞춰라

채희봉 사장: 어디 나오니까? 그러니까 공소장은 그럼 제시를 해 주십시오.

김정재 위원: 공소장에 나오죠.

채희봉 사장: 그러면 공소장을 제시를 해주십시오. 저한테

김정재 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들고 오지는 않았는데 이미 언론 보도에 나왔고

채희봉 사장: 아니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맞다라는 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셨냐고

김정재 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든지

채희봉 사장: 그러니까 그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제가 그게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김정재 위원 (마이크 꺼짐):

채희봉 사장: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나중에 그 부분은

김정재 위원 (마이크 꺼짐):

(중략)

발언 이학영 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신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정훈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채희봉 사장(한국가스공사) 답변
한국가스공사 비위 파면, 해임된 임직원의 공사 유관기업 재취업에 대한 질의

발언 이학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철규 위원(국민의 힘) 질의 / 채희봉 사장(한국가스공사) 답변
이철규 위원: 강원도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출신 국민의 힘 이철규입니다. 우리 가스공사 사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채희봉 사장님,

채희봉 사장: 예.

한국가스공사의 대북 에너지 지원 정책에 관한 질의

이철규 위원: 우리 가스공사가 말이죠. 김해시하고 2021년 저기 보니까 18년에 협약을 하고 아마 사장 부임 전이죠. 2018년은

채희봉 사장: 2018년도는 예 제가 부임 전입니다.

이철규 위원: 부임 전일 거예요. 그런데 2021년 금년 8월 25일 날 보니까 말이죠. 돌려보세 요 저게 우리 한국 경제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우리 **김해에 있는 제조식 수소충전소**를 갖다가 이제 가스공사가 말이죠. 전국 기지로 확대해 나가는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취지의 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이 가스공사가 수소경제 선두 주자로 변신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데 이런 사실이 있죠.

이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취지를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사장이 이렇게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은 이 사업이 실패할 것을 버젓이 알고 이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추진**하도록 내 버려둬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추진하는지 경제성 검토를 하면서 조작해서 자료를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거 보시면은 2019년 10월 17일 날 기본 계획이 확정됐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비용 검토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2020년 불과 한 8개월 후에 비용이 과다하다고 사업을 중단하고 사장에게 보고를 했어요. 사장님 보고 받으셨죠.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채희봉 사장: 보고받았습니다.

이철규 위원: 이게 비용 과다로 사업이 중단됐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약 한 2개월 있다가 지난해 8월 29일 날 변경 계획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외부 기관의 경제성 분석을 의뢰하여 다시 이걸 하기 위해서 잘못된 걸 하기 위해서 경제성 분석을 의뢰하면서 이 자료를 또 이 경제성 분석에 기본 되는 토대가 되는 자료를 허위 자료를 쫓가지고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20일 이사회가 계획 변경 최종 확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마이크 꺼짐) 또 다시 문제가 되니까

발언 이학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다음은 최승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최승재 위원(국민의힘) 질의/ 김동섭 사장(한국석유공사) 답변 / 채희봉 사장(한국가스공사) / 황규연 사장(한국광해광업공단) 답변

최승재 위원: 국민의힘 최승재 위원입니다. (중략) 석유공사 사장님 가스공사 사장님 광해공단 사장님 같이 좀 질의 듣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광해과학공단 이사장님 광물종합지수 아시죠. 리튬, 니켈, 구리 **산업적 중요도가 높은 12대 광물의 가격**을 지수화한 광물 종합지수입니다. 이게 지난해 10월 하여튼 상당히 두 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광물 종합지수 현황입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리는 희소금속이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요. **희토류** 아주 저렴하게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전기차 LED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특히 천연가스 원유 가격 최고치 기록하고 있고 자원 충분히 비축하고 확보가 필수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각축을 벌이고 자원의외교 총력전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만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석유공사가 해외 자원개발 추진하고 계십니까?

김동섭: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승재 위원: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가스공사 회원님 2018년 7월과 21년 4월 산업부 등 해외 자원개발 혁신 TF 권고안을 통해서 해외 자원 개발에 앞장선 3사에 대한 전략 매각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채희봉 사장: 예

최승재 위원: 이게 **해외 자원 개발이 때아닌 이전 정부의 실패한 사업이라는 꼬리표를 단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전기차 3만 대 만들 수 있는 니켈 광산을 권고하에 넘기겠다는 결정에 당장 매각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광물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에 우선 판매하겠다는 다소 황당한 모순된 해명이 나왔죠. 이게 당혹스러운 점은 해외 자원 개발의 전략 매각을 지시하면서도 자원 앞 외변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자원 해외 자원의 개발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쪽 발표하는 거죠. 석유 공사 사장님 아까 뭐 전략 매각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김동섭 사장: 전략 매각은 아닙니다.

최승재 위원: 해외 자원개발 추진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김동섭 사장: 지금 UAE Al Dhafra(알다프라)가 있고요. UAE에 두 개가 있고 베트남 15-1 광구가 있고 카자악이 있고 다나에 가스 톨마운트가 있고 꽤 있습니다.

최승재 위원: 제가 지금 봤는데요. 도표 보시면 알겠지만 17년 15건의 신규 사업 추진했는데 열두 건이 초기 단계에서 진행하지 못했고요. 지금 세 건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 사항인데 지금 뭐 지금 불확실해요. 지금 보니까 광해 공단도 신규 사업 검토나 신규 진행될 사항이 전혀 없어요 가스공사는 어떻게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3사로부터 보고받은 바에는 현재 사업성이 높은 수익성이 높은 것도 결국에 매각 절차를 밟고 있어요. 이래서 사실은 이게 이런 자원의 그거는 정치 논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 자원의외교의 처음에 시작을 하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시고 확대하신 분이 MB 이명박 대통령이시잖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리튬 관련된 건 전기 자동차 꼭 필수 사항인데 이게 자원 관련된 부분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수십 년이 걸려서 성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실패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잘 아시겠죠. 우유니 광산 사례 보시면 알겠죠. 보시죠 이거. 이게 3천억 투자에서 결론 민간에서 정부에서 외면한 거 35조 대박 났지 않습니까 17년 20년 걸린 일이에요. 근데 지금 모순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다른 방식의 권고했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일찌감치 자원의 외교에 뛰어들어서 다른 주요국들이 자원 확보하고 있잖아요. 경쟁하고 있고 해외 자원 개발에 3사는 산업부의 자원개발 기본 계획에 따라 민간과 협업을 통한 자원개발을 추구하

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민간 특수성이 자원개발에 선제적으로 뛰어든 기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민간이 주도한 개발 실적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보세요. 저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누가 리스크를 안 할 것 같아요. 정부가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결과는 정권 정치와 상관없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아까 이 소금강산에서 이렇게 나오듯이 이렇게 수십 년 우리가 전기자동차에 이거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대박이 나서 나오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투자 없이 어떻게 제대로 된 자원 확보가 가능합니까. 리스크를 민간에다가 떠넘길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쉽지 않고 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불확실성이 높은 자원 개발은 수십 년이 걸리고 전 세계에서 보통 탐사부터 생산까지 평균 17년 정도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지금 현 정부도 자원을 확보하는 데 되게 중요한 시기에요. 여길 수 밖에 없는 지금 요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희토류도

그런 지침이 떨어졌고. 이거 앞으로 또 20, 30년 뒤에 또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자원 외교 컨셉 또한 자원 개발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되면 어떤 자원이 과거에 또 필요 없던 그런데 지금 중요성이 바뀔 수 있는 자원들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사실은 고도화된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해외 자원 사업이 제가 봤을 때 자본 잠식 등 공기업의 사업과는 별개로 또 3사는 스스로 혁신하는 의지가 좀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임직원 성과급에 대한 질의) 어떻게 1년, 2년을 보고 다 결과를 알 수 없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한 쪽에서는 계속 매각하시고, 한 쪽에서는 투자 안 하시고 한 쪽에서는 창고 확보도 못하고 희토류 관련된 부분 창고도 없는데... 상당히 중요한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사 사장님들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보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봉 사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일부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조금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부담도 많이 늘고 부채 비율도 늘어난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일단 이것을 잘 구조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좀 부실한 자산들은 빨리빨리 매각을 하고 그다음 그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신규 사업 추진을 해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의원님 취지를 감안한 이런 사업들을 지금 검토를 지금 쪽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자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섭 사장: 예 지적 잘 들었고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석유공사는 특히 대형화 부실로 인해가지고 그런 후유증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원이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석유공사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부분에서는 국방부라고 생각합니다. 자원 안보를 위해서 국방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에너지 자원은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데 전략이 약간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대형 투자에서 오늘 왕창 버는 그 위주에서 지금은 저희들이 도입이 가깝고 어떤 비상시에 쉽게 도입할 수 있고 계약이 있고 확률이 높은 분야 UAE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부분 전략을 바꿔서 지금 수행하고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약 한 1일 생산량이 한 14만6천 배럴 정도 됩니다. 하루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올해 말 내년 초에 되면 이게 12만6천으로 줄어듭니다. 저희들의 전략 안보를 위해서는 약 한 14만 배럴 정도는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전략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 투자도 작지만 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부와 긴밀하게 연락해서, 이쪽 부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연 사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황규연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신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원료 광물 확보 문제는 사실은 좀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자원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미흡했던 점은 좀 시정하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사실은 저희 이제 과거에 광물자원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중심이 돼가지고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했는데 패러다임을 좀 바꿔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의 경험 실패 경험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자산들을 갖다가 민간이 해외 자원개발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노력을 강화하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자원을 확보하는데 개발 중심으로 확보를 했다면 앞으로는 좀 비축강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미 폐금속 자원을 회수해서 재활용 하는 쪽에도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균형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재 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수행해온 기존에 있는 사업을 정부에서부터...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것보다 순차적으로... 매각하시면... 뒤늦게 괜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고 신규사업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정부가 ... 정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급하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시고 소신 있게 하시는 부분이 지금 당장에는 그렇다치더라도 분명히 훗날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왔으니까 순차적으로 매각 진행하는 부분도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섭 사장: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17개국에 31개 광구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매각 중 전체가 다 아니고요. 6개국에 약 13개 사업을 지금 순차적으로 매각 진행 중입니다.

발언 이학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황운하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채희봉 사장(한국가스공사) 답변 / 박지현 사장(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 안전 점검 체계에 대한 질의

발언 이학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권명호 위원(국민의 힘) 질의 / 김동섭 사장(한국석유공사) 답변

권명호 위원: 네 울산 동구 출신 국민의 힘 권명호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사장님 예 자료 한번 보시죠. PPT 그냥 자료 보시면 최근 몇 년간 석유공사 재무제표를 보여줍니다. 자본이 2013년까지는 10조 원 수준이었다가 이후로 매년 꾸준히 줄어들면서 결국 작년에는 마이너스 1조 1천억 원으로 자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또 다른 자료 화면 보여주시죠.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도 잠시 규모가 더 커져 25년에는 2조5천억 원까지 늘어나는 것

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자구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사장님이 또 경영 능력도 돋보여야 되고 그렇지만 자구 노력을 해야 할 석유공사가 부유식 해상풍력을 위해 2024년까지 약 1천억의 이미 돈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본 잠식이 심해지고 있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력 질주해야 하는 상황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천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최근 태양광 풍력 등 간헐성 재생 에너지 증가에 따른 공급 불안정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원래 풍력 발전단지가 55차례나 강제 발전 중단을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장과 송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지마식으로 신재생 발전 설비가 우후죽순격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상 풍력 발전은 바람이 약하거나 강한 태풍에는 매우 불리합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 중인 동해 가스전 주변은 초대형 태풍이 통과하는 곳입니다. 지난해 9월 울산을 강타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이곳에 설치된 풍량계측기가 부서졌고 2016년에 제주도에는 풍력 실증 단지에 있던 풍력발전기 1기가 태풍 차바로 날개가 파손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유럽에 적합한 해상 풍력 발전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처럼 신중을 기해야 하고 태풍 경로와 세기, 풍황 등을 정확하게 측정해 분석하지 않고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한다면 곳곳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사장님.

김동섭 사장: 예

권명호 위원: 정부의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편승해 재무건전성 구조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석유공사 본업에 충실해 철저한 자구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사장님

김동섭 사장: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명호 위원: 예 나중에 답변 주시고 정부든 공공기관이든 민간 사업자이든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요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월성 1호기. 또 원전 이야기만 나오면 안전성, 경제성, 주민 수용성을 내세우면서 왜 이 경우에는 이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는가.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반대 어민들의 해상 시위입니다. 석유공사와 울산시 동서발전 등이 울산 앞바다에 추진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상 시위뿐만 아니라 석유공사 앞에서도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화면 꺼주시고요. 울산시와 석유공사 등은 분식 해상풍력을 추진하면서 200여 명에 불과한 대책위와 협의를 마치 2200명이 넘는 전체 어민들의 입장인 것처럼 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전체 어민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일부하고 합의한 것이 주민 수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장님

김동섭 사장: 전체적으로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권명호 위원: 그러면서 반대하는 어민들에 대해서 보상금 문제로 찬성하는 분들의 갈등으로 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반대하는 분들은 보상금 몇 푼 받자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또 받고 있죠.

김동섭 사장: 저희들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권명호 위원: 그렇죠. 이 사실 이곳은 울산 앞바다의 황금어장인 곳에 서울시 면적의 2배가 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계 터가 사라지고 생존권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러한 불안과 걱정이 크기 때문입니다. 삶의 입장을 지키겠다면 싸우는 이분들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들의 활동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

로 사업에 유리한 내역을 선점한 문제도 강력히 비판하며 반대하는 것 입니다. 이 어민들께서 사업지 선정부터 어민들을 참여시켜서 다시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동섭 사장: 지금까지 있는 거 잘 설명드리고. 지금 이제 4개 위원회가 다시 생겼습니다. 지금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명호 위원: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이 문제를 차근차근 그렇게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해상풍력 해양환경 및 어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18년 수협중앙회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내용이 조업 구역 축소 해양 생물 서식지 파괴 화학물질 누출 소음 진동으로 인한 생태계 결합 전자기장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어업인들과 어업에 지장을 미친다고 그렇게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주민 수용성 해양환경 및 어업에 미치는 영향 또 사업의 확실한 경제성 및 안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했는데 (마이크 꺼짐)... 시간이 부족하면 자료로라도 충분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사장: 지적에 있는 책임감을 느끼고요. 먼저 **주민 수용성**부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포항 앞바다에 어선 소유주였습니다. 그래서 어민의 어민을 포함한 그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 해상 위쪽 부분에 대해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충분히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지금 제일 큰 위원회를 같이 이제 거의 합의를 봤는데 나머지 4개 위원회가 따로 쟁겼습니다. **정말로 성실하게 대응**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조금 더 혁신적인 방안으로 이익 공유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사하게 비슷하지만 지금 보스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스톤에 여러 잘 아시는 크랩셀 조개가 많이 나는데 해상풍력 발전이 다니다 해서 셀 업자들과 하는 해외 사례도 있고 함으로 잘 충분히 해서 정말로 저희들이 같이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설계 부분 해상풍력 태풍 이런 부분인데 제가 다행히도 옛날에 **멕시코만 하고 유럽에 플로팅 시스템**을 설계 다른 기업에 있을 때 **플로팅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태풍이 보통 가장 강력한 게 한 59km 초속 되는데 영국의 ○이라든가 멕시코의 걸프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60kg 되는 그런 부분을 100년 데이터 이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엔지니어들한테 맡겨주면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저희들 돈으로 다 투자하면 신뢰성도 있고 저희들이 해상풍력 그렇겠지만 다행히도 해상풍력 특히 **플로팅 해상풍력의 세계 최고고 제일 잘하는 경험이 있는 에키노라**는 노르웨이 회사입니다. 에키노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면 원래는 스타토일이라고 노르웨이 국영 석유회사입니다. 노르웨이 국영 석유회사가 에퀴노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면서 풍력도 동시에 하고 있고 저희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크게 하지 않고 신중하게 하나씩 하나씩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안 부분의 주민**과 그다음에 **안전성** 그다음에 **경제성** 부분도. **경제성** 부분은 **지금 예타를 통과했던 부분이 있지만 적극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우리가 석유공사가 적자인데 이쪽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항상 저희들이 현재와 미래를 좀 같이 봐야 돼서 옛날같이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는 지난 한 30~40년 동안 제가 에너지 분야를 보면서 에너

지는 이렇게 고속정 같이 이렇게 쉽게 그냥 90도로 딱 튕하는 수가 없고 항공모함 같이 천천히 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탄소 부분에 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논리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명호 위원: (마이크 꺼짐) : 자본잠식에 대한 부분들은...

김동섭 사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계획이 있는데 일단은 잠시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영업 이익이 한 5천억 되는데요. 아무리 해도 저희들이 수준이 1천억, 2천억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본 감식 규모가 1조 2천억입니다. 저희들 저기 공사 직원들 월급이 다 합해봐야 천억인데요. 한 푼도 안 주고 해도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정부의 도움이 좀 필요한 상태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계획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이학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류호정 위원(정의당) 질의 / 채희봉 사장(한국가스공사) 답변

한국가스공사의 2017년 7월 20일 이후 입사자의 전환 채용, 시중 노임 단가 인상률 미반영에 대한 질의

발언 이학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소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채희봉 사장 (한국가스공사)

유엔의 표적 제재 대상인 미얀마 쉘 가스전 사업 조치에 대한 질의

발언 이학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양금희 위원(국민의힘) 질의 / 채희봉 사장(한국가스공사) 답변

에 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양금희 위원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구 세계가스총회가 내년에 개최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에너지 분야 최초로 큰 최대의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공사가 잘 준비하고 있겠지만 행사가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총회 이후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희봉 사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계가스총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구 지역 경제라든지 한국 에너지 업계의 위상에 중요한 국제적인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양금희 위원: 네 준비하시고요. 그에 대한 계획도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채희봉 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금희 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수소 경제 활성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소 R&D에 관

한 현주소는 수소 연구 개발에 투자한 금액만 1828억인데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그린 수소 기술 국산화 수준은 70%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소 공급 면을 살펴보면 당장 내년에 수소 47만 톤 공급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스공사가 전담하고 있는 수소 생산기지 유통 거래 시장의 현황을 보면 절대로 낙관할 수 없습니다. 우선 1250억 원을 들인 수소 생산기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PPT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경남 창원에 구축한 생산기지의 1일 생산량이 1톤입니다. 이마저도 지금 현재 10개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중에 지금 두 개는 연내에 준공하겠다고 했고요. 7개는 현재 구축 중이라고만 합니다. 아마 이 문제는 주민 수용성과 관계 있는데요. 47만 톤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기술은 부족하고 로드맵대로 뭔가 해야 되기는 하겠고 숫자에 맞추려다가 보니까 급하게 예산을 받아서 생산기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데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수소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수소 수입 경쟁만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수소 경제 안착을 위해서는 수소차 충전 인프라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인프라의 핵심은 유통이고 유통이 안정되어야 가격 또한 안정됩니다. 관련해서 산업부는 현재 kg당 8400원인 가격을, 내년에는 6천 원 30년에는 4천 원 40년에는 3천 원으로 공급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가스공사의 역할은 민간 운영 수소충전소 사업자의 유통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민간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총 32억 원으로 튜브 트레일러 16대 보급을 가스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계약이 지금 완료될 지금 예정입니다.

계약만 지금 완료됐고 운영 자체는 아직 한 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예 0대입니다. 정책 집행이 제대로 안 되다가 보니까 시장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 처음으로 수소차 상용화를 실현시킨 나라에서 수소차 점유율이 83%에서 올해는 53%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수소차가 늘어나는 데 있어가지고 수소차에 대한 가스공사의 통계상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목표한 내년도 kg당 수소 가격은 6천 원입니다. 지금 전국 수소충전소의 평균 가격은 8399원입니다. 1년 만에 2400원 가까이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과제도 걱정이지만 거래 시장 운영은 더 걱정됩니다. 가스공사 사장님 온라인 유통거래 시장을 지금 가스공사가 운영하겠다고 하시면서 수소 가격 통계를 어떻게 집계하고 계십니까?

채희봉 사장: 수소 가격은 소비자 가격 중심으로

양금희 위원: 소비자 가격 중심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이 소비자 가격이 통계를 내는 데 있어서 아마 콜센터에서 일일이 수소 충전소에다가 전화해서가지고 통계를 내고 계시죠. 가스공사 답지 않는 정말 현실과 많이 괴리되어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콜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다음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수소 충전 수소 충전기가 목표로 얼마를 예상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180대가 정부의 목표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난 다음에 수소충전소 안전 점검 장치를 아마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요.

몇 대를 구입하셨습니다?

채희봉 사장: 저희가 작년 말에 180세트를 구입했습니다.

양금희 위원: 180대 구입하셨죠. 그런데 그 180세트 중에서 현재 지금 안전 점검에 이용되고 있는 거는 몇 대입니까. 지금은 68개소에 장비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만

지금 보급되고 나머지는 창고에서 먼지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채희봉 사장: 네.

양금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제대로 안전 관리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 사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가스공사가 대구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가스공사는 21년 전국에 지급된 연구개발 예산 6조 원 중에서 대구에 지급된 연구개발 (마이크 꺼짐)

채희봉 사장: 먼저 양금희 위원님께서 대구 지역 경제와 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강력 이렇게 권유를 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가스공사 농구단 프로농구단을 인수를 하면서 상당히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지금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R&D 관련되는 부분 저희들이 지금 가스공사 본사 부지 앞에 수소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그린 이노베이션 센터** 이거를 지금 구축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대구시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그쪽에 **대구 지역 산학연 협력 활동**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비중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대구시가 수소 쪽 R&D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 이학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홍정민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동섭 사장(한국석유공사) 답변 / 유법민 자원산업 정책국장(산업부) / 채희봉 사장(한국가스공사) 답변
유가 상승에 따라 알뜰주유소를 통한 저렴한 가격의 공급, 유류세 인하 제안, LNG 장기계약 공급에 대한 질의

중지 이학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